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 문해력과 국어과 교육과정의 대응

이경화(한국교원대학교)

목차

- I. 문제는 역량이 아니라 ‘국어 기초 기능’이다.
- II. 기초 문해력의 개념과 특성
- III. 국내외 자국어 교육과정의 특징
 - 1. 영국의 자국어 교육과정
 - 2. 미국의 자국어 교육과정
 - 3. 우리나라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
- IV. 기초 문해력 차원에서의 자국어교육과정 분석
 - 1. 분석 기준
 - 2. 분석 결과
 - 가. ‘내용’ 향 분석과 시사점
 - 나. ‘교수 학습 및 평가’ 향 분석과 시사점
- V. 결론

I. 문제는 역량이 아니라 ‘국어 기초 기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를 위기에 빠뜨렸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 시기에 교육 시스템의 대전환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시기는 평상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던 학생들도 교육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 이전부터 학습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학습 관련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이 크고 작은 학습 손실을 경험하지만, 물리적 환경, 부모의 지원, 각종 발달적 활동 등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진 학생들은 일반 학생보다 더 큰 학습 손실을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OECD, 2020)¹⁾.

온라인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이 지속되면서 이 시기에 누적된 학습 결손이 이후

1)·우리나라: 2020년 11월에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중3 국어 2017년 2.6% → 2020년 6.4%, 고2 국어 2017년 5.0% → 2020년 6.8%)

·미국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4~5개월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다(The New York Times, 2021.7.27.일자).

·영국의 전국교육연구재단에 따르면, 초2 학생의 읽기와 수학 성취도가 2017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으며 이 차이는 약 2개월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계층 간의 격차는 7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점차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The Guardian, 2021.1.28.일자).

의 학생 생활 및 학습에서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불리함’은 기본적으로 교육적으로 불리함을 초래하는 조건, 즉 경제적 조건, 성, 연령, 장애, 질환, 심리·정서적 특성, 가정 환경,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이주 배경, 지역, 학습 어려움의 중재 기회 등 다양한 조건에서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특히 가족 전체가 불리한 조건 속에 있을 때, 즉 가족의 자원이 불리함을 극복하는 데 역부족일 때는 학습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김성철(2013)은 이를 ‘재난의 불평등’으로 보고, 재난에 의해 그동안 주류에서 밀려나 있던 불리한 집단은 이전보다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며 이들이 겪는 불평등은 더욱 심화된다고 하였다.

위기 상황에서도 사회의 교육복지 안정망은 필수적이다. 교육 복지는 교육 소외, 교육 형평성, 교육 평등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다(류방란 외, 2013). 이러한 기초학력 부진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개입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부진의 정도가 심해진다. 교육 복지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9월에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기초학력은 모든 교과 학습에 영향을 주고, 특히 국어 기초학력 부진은 모든 교과 학습 부진을 초래한다. 국어 기초 학력의 핵심은 문해력이며, 이 문해력의 출발이 바로 ‘기초 문해력’이다.

문해력(literacy)²⁾의 본래 어원은 라틴어 ‘litteratus’에서 왔는데 처음에는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문해력은 기존의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에 기반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의사소통에서 복합양식 텍스트를 비롯한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텍스트까지 포함하는 의사소통으로 확장되었다.

문해력은 교과 학습의 성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문명인으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해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시기가 바로 국어 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이다. 이 시기에 기초 문해력을 성취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과업이다. 성공적인 기초 문해력은 국어 학습 및 다른 교과 학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기초 문해력 부진이 발생할 경우 학습 부진이 누적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생활 전반과 정서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³⁾.

국어 교육 격차 요인은 다양하다. 이 연구에서는 국어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국어 지도 방법, 국어 교수 학습 자료, 교사 등 교육적 요인, 이 중에서도 ‘국어교육과정

2) literacy 번역어로 문해력, 문식성, 문식력 등이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문해력’을 사용하고, 국어교육과정 1~2학년군 목표를 명시할 때는 ‘기초 문식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3) 문해력은 교과 학습의 기초이다. Juel(1988)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읽기 부진 학생이 4학년이 되어서도 읽기 부진일 확률이 88%라고 하였다. Snow, Burns & Griffin(1998)은 읽기 부진이 누적되는 3학년 이후보다는 1~2학년부터 적극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읽기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이라고 하였다.

요인'에 초점을 둔다. 국어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며 국어교육의 첫 단추가 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은 국어교과 역량으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 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국어교과 역량은 국어 기초 기능을 토대로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국어 기초 기능이 더 중요하다. 국어 기초 기능이 부족하면 학습 부진이 심화된다. 그러므로 국어교육과정이 국어 기초 기능 도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육 격차 해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기초 문해력 향상과 국어과 교육 과정의 대응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기초 문해력의 기초 문해력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기초 문해 교육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외 자국어교육과정(영국, 미국, 우리나라)이 특징을 기초 문해력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내용'항, '교수 학습 및 평가'항 측면에서 기초 문해력 도달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기초 문해력 개념과 특성

기초 문식성은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 1~2학년의 학년군 목표에 “취학 전의 국어 경험을 발전시켜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 문식성을 갖추고, 말과 글(또는 책)에 흥미를 가진다”라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또 1~2학년군 영역 목표에도 기초 문식성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

<표 1> 1~2학년군 영역 목표(읽기, 쓰기, 문법)

읽기	쓰기	문법
한글을 깨치고 읽는 활동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u>기초적인 읽기 능력</u> ⁴⁾ 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한글을 깨치고 학습자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학습 결과를 문자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u>기초적인 쓰기 능력</u> 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u>기초 문식성</u> 을 습득하여 학교에서 국어 생활에 원활히 적용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한글을 해독하고, 낱말과 문장, 문장부호를 바르게 사용하며 말과 글에 대한 관심을 갖는 데 주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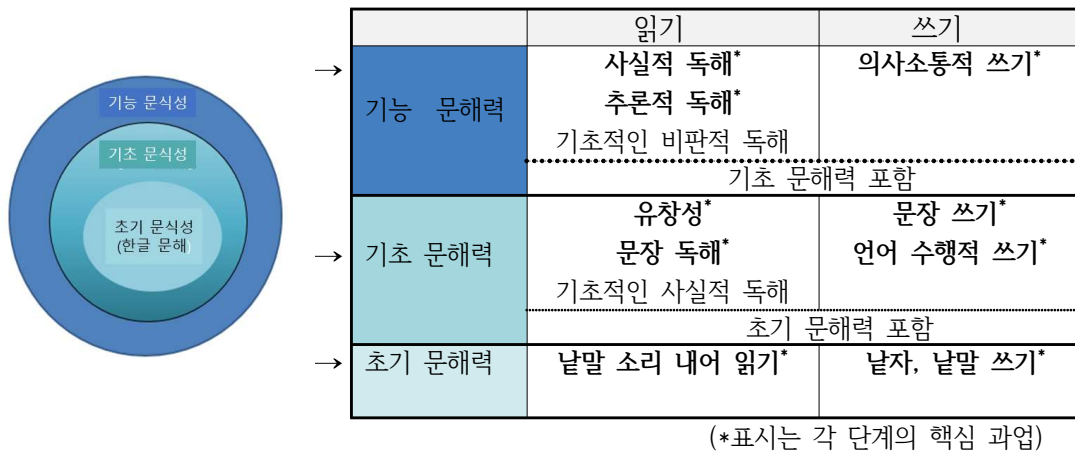
문해력 수준은 초기 문해력, 기초 문해력, 기능 문해력, 비판 문해력으로 나눌 수 있다. 문해력 수준은 분절된 것이 아니라 언어 발달의 연속선상에 있는 문해의 정도를 표시한 것이다. 이 연구는 기초 문해력에 초점이 있으므로 기초 문해력의 앞, 뒤

4) 밑줄은 연구자가 기술함.

에 있는 초기 문해력, 기능 문해력을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문해력 수준의 발달 층위를 고려할 때, 학습자의 문해력은 초기 문해력부터 시작하여 앞 단계를 포괄하며 기초 문해력과 기능 문해력으로 점차 확대되는 동심원 형태를 띤다. 즉 초기 문해력에 도달해야 기초 문해력에 도달할 수 있으며, 만약 초기 문해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초 문해력에 도달하기 어렵다. 기초 문해력과 기능 문해력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에서 ‘*’ 표시가 있는 것은 해당 문해력 단계의 핵심 과업이다. ‘*’ 표시가 없는 것은 해당 단계의 핵심 과업은 아니지만 해당 단계에서 도달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해당 단계의 모든 과업에 도달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그림 1] 문해력의 발달 층위(이경화, 2020)

- 초기 문해력(Early literacy EL): 한글 문해(한글 해득)와 동의어로, 낱말을 소리 내어 읽고 낱말을 쓸 수 있으며 그 낱말의 의미를 아는 능력
- 기초 문해력(Basic literacy BL): 초기 문해력(한글 문해)을 포함하며, 낱말과 문장을 유창하게 읽으며, 문장과 짧은 글을 읽고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 수준의 읽고 쓰는 능력
- 기능 문해력(Functional literacy FL): 기초 문해력을 포함하며 일상생활 및 학습, 직업 생활에 필요한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기초적인 비판적 독해 등의 고등 사고력을 요하는 읽기와 쓰기 능력

문해력 수준에 따른 학습 내용과 언어 단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 문해력 학습 내용은 초기 문해인 한글 학습을 포함하여, 유창성, 문장 독해, 문장 쓰기, 언어 수행적 쓰기, 기초적인 사실적 독해다.

<표 2> 문해력 수준의 학습 내용과 언어 단위

문해력 수준	학습 내용	언어 단위
초기 문해력	한글 해득(인쇄물에 대한 개념, 음운 인식, 해독, 글자 쓰기, 어휘)	낱자, 낱말
기초 문해력	유창성, 문장 독해, 문장 쓰기, 언어 수행적 쓰기, 기초적인 사실적 독해	문장, 짧은 글
기능 문해력	사실적 독해, 추론적 독해, 의사소통적 쓰기, 기초적인 비판적 독해	문단, 글

한글 해득은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가장 기초가 되는 능력이다. 한글 해득은 낱말을 읽고 낱말을 쓸 수 있으며 그 낱말의 의미를 아는 것을 말한다. 한글 해득 개념을 부연하면, 시각적으로 제시된 낱말을 말소리로 바꾸어 그 말소리에 해당되는 낱말을 자신의 어휘망을 탐색하여 의미와 연결 짓는 능력, 또 반대로 낱말의 의미나 음성을 문자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유창성이란 낱말이나 문장을 적절한 속도로, 정확하게, 적절한 억양으로 표현력을 살려 소리 내어 읽는 능력을 말한다. 유창성은 ‘해독과 독해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Pikulski & Chard, 2005). 읽기 유창성이 자동화되면 글의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된다. 낱말과 문장을 유창하게 읽게 되면 보다 글의 의미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 독해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문장 독해 학습에는 문장 성분 중심 문장 독해(기본 문장, 확장 문장), 문장 짜임 중심 문장 독해(홀문장, 겹문장) 등이 포함된다. 짧은 글의 사실적 독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장 독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장 독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 단위 독해에서 부진이 발생하게 된다.

문장 작문은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문장 작문 학습에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기준으로 문장 작문하기 등이 포함된다. 문단이나 짧은 글 쓰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문장 작문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장 작문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작문에서 부진이 발생하게 된다.

기초적인 사실적 독해는 짧은 글을 읽고 글의 의미를 대강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것은 기초 문해력 단계의 핵심 과업은 아니지만 도달해야 할 주요 내용이다. 기초적인 사실적 독해는 글의 의미를 대강 안다는 것이며, 이것은 글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대략 알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설명하는 글의 경우 설명의 대상, 곧 화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야기 글의 경우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아는 등, 핵심적인 대상이나 어휘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이다.

언어 수행적 쓰기는 필자들이 글쓰기 관습이나 어법을 지키며 글을 쓰는 능력을 말한다(Bereiter, 1980). 언어 수행적 쓰기는 초등 2학년은 언어 수행적 쓰기의 시작 단계이고, 초등 5학년 시기에 도달된다. 맞춤법, 문장 구조 등에 대한 지식을 갖출 뿐만 아니라 실제 쓰기에서 자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Ⅲ. 국내의 자국어 교육과정의 특징

이 장에서는 영국, 미국, 우리나라 국어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고 기초 문해력 차원의 분석 자료로 삼고자 한다. 영국과 우리나라는 유치원교육과정(누리과정), 국어교육과정이 각각의 규정으로 개발되었으며, 미국은 유치원교육과정과 국어교육과정이 하나의 규정으로 개발되었다. 언어 발달 면에서 학교급이 연속선상에 있으므로 함께 살펴보고⁵⁾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영국의 자국어 교육과정

먼저, 영국의 유치원교육과정(Early Years Foundation Stage, EYFS, 2012년)은 유아의 복지 및 학습 발달 사항을 담고 있다. 영국 유치원교육과정의 문해 내용 영역은 읽기, 쓰기다. 그런데 <표 2>에서 보듯이, 문장 수준의 읽기,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 쓰기 등 읽기, 쓰기 목표 수준이 높은 편이다.

<표 3> 영국의 유치원교육과정 읽기 영역, 쓰기 영역 목표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문장을 읽고 이해한다. • 글자와 소리의 대응 지식을 사용하여 규칙적인 낱말을 소리 내어 읽는다. • 글자와 소리 대응이 불규칙한 단어들을 읽는다. • 읽은 내용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가 형태가 있음을 안다. • 소리와 글자 대응 지식을 사용하여 일치하는 낱말을 쓴다. • 소리와 글자 대응이 불규칙한 단어들 중 단어를 몇 개 쓴다. •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간단한 문장을 쓴다.

다음으로, 영국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The National Curriculum in England, 이하 NC)은 2013년에 개정되었으며, 편제는 4개의 Key Stage 학년군 교육과정이다. 내용 영역은 초등학교급과 중등학교급에서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급은 음성 언어, 읽기, 쓰기의 3개 영역이며, 중등학교급은 음성 언어, 읽기, 쓰기, 문법과 어휘의 4개

5) 우리나라의 누리과정(2019 개정)이 국어교육과정(2015 개정)보다 후에 개정되어, 국어교육과정의 기초 문해가 중심이므로 누리과정은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영역이다.

<표 4 >영국의 자국어교육과정의 영역

구분	Key Stage1(5~7세) [Year 1~2]	Key Stage2(8-11세) [Year 3~6]	Key Stage3 [Year 7~9]	Key Stage4 [Year 10~11]
영역, 범주	음성 언어		음성 언어	음성 언어
	읽기	• 단어 읽기 • 독해	읽기 • 단어 읽기 • 독해	읽기
	쓰기	• 글자 쓰기 • 작문 • 어휘, 문법, 문장부호	쓰기 • 글자 쓰기 • 작문 • 어휘, 문법, 문장부호	쓰기
				문법과 어휘

Year 1의 읽기 영역,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⁶⁾은 다음과 같다. 읽기 영역은 단어 읽기(9)⁷⁾, 독해(4) 범주이며, 쓰기 영역은 글자 쓰기(5), 작문(5), 어휘·문법·문장부호(3) 범주이다.

<표 5> 읽기 영역(일부)

범주	Year 1
단어 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와 소리 대응 관계를 적용하여 해독한다. • 낱자에 알맞게 대응하는 소리를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다. • 친숙하지 않는 단어의 음운을 조합하여 해독한다. • 글자와 소리 대응 관계를 적용하여 친숙하지 않은 단어를 정확하게 읽는다. • 글자와 소리의 대응이 일치하는 낱말이 들어있는 책을 소리 내어 읽는다. • 낱말을 유창하게 읽기 위해 반복해서 책을 읽는다.
독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의 즐거움, 읽기 동기, 어휘, 독해력을 기른다.

<표 6> 쓰기 영역(일부)

범주	Year 1
글자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낱자 쓰기 • 낱자 명명하기 • 소리와 글자의 대응이 규칙적인 낱말, 규칙적이지 않은 낱말 쓰기 • 낱말, 문장 받아쓰기
작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 쓰기 • 자신이 쓴 것을 교사와 동료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기 • 자신이 쓴 글을 동료 학생들과 교사에게 소리 내어 들려주기
어휘·문법· 문장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록 2에 있는 낱말 뜻 이해하기 -띄어쓰기 -이어주는 문장 쓰기 -문장부호 사용하기

6) Key Stage 1의 Year 1, Year 2는 초등학교 1,2학년이며 성취기준이며, 학년 간 지속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Year1의 성취기준만 제시한다. 참고로 Year 2의 읽기 영역은 단어 읽기 (8), 독해(4), 쓰기 영역은 글자 쓰기(4), 작문(4), 어휘·문법·문장부호(3)이다.

7) ()의 숫자는 성취기준 개수임

‘교수 학습 및 평가’ 측면에서 적절한 도전 과제 제시, 학생의 개인차 고려, 학습자의 장애 제거 등에 대한 교사의 의무를 명시하였다. 학업 성취가 낮거나 다양한 측면에서 불리함이 있는 학생을 위해 적절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강조된다. 학습 부진, 장애, 다문화 학생 등 모든 학생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보편적 수업 설계를 할 것을 강조한다.

2. 미국의 자국어 교육과정

미국은 고등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 성공적인 대학과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1년에 공통핵심국가기준(Common Core State Standards, 이하CCSS)을 도입하였다. CCSS는 국어교육과정인 CCSS for English language Arts(ELA)와 CCSS for literacy in History/Social Studies, Science & Subjects(타교과 문해력교육과정)로 나뉜다. 전자는 K~12학년까지 제시되고, 후자는 6~12학년부터 제시된다(이경화, 2020). 편제는 K~8까지는 학년별 교육과정이고, 9~10학년군, 11~12학년군 교육과정이다.

CCSS 자국어교육과정(ELA) 내용 영역은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문법의 네 영역이다. 읽기 영역은 문학, 정보 텍스트, 읽기 기초 기능의 세부 영역이 있으며, 각각 네 개의 범주가 있다. 그리고 쓰기 영역에는 네 개의 범주가 있다.

<표 7> 미국 자국어교육과정의 영역

영역 세부 영역	읽기			쓰기 (K-12)	말하기·듣기 (K-12)	문법 (K-12)
	문학 (K-12)	정보 텍스트 (K-12)	읽기 기초 기능(K-5)			
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 내용과 세부 사항 표현과 구조의 이해 지식과 아이디어의 통합 읽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 내용과 세부 사항 표현과 구조의 이해 지식과 아이디어의 통합 읽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쇄물의 개념 음운 인식 해독 및 단어 재인 유창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텍스트 유형과 목적 작문의 생산과 소통 지식을 쌓고 제시하기 위한 연구 쓰기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해와 협력 지식과 아이디어의 제시 음성언어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 영어 관습 문법 지식 어휘 학습과 사용

초등학교 1~2학년군 읽기 영역, 쓰기 영역의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읽기의 세부 영역인 문학, 정보 텍스트, 읽기 기초 기능의 읽기 기준 개수는 각각 9개, 10개, 4개이다. 그리고 쓰기 영역의 쓰기 기준 개수는 7개이다.

<표 8> 읽기 영역의 '문학'에 대한 읽기 기준(일부)

유치원	1학년	2학년
중심 내용과 세부 사항		
1.교사의 안내를 통해 텍스트의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한다.	1.텍스트의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한다.	1.텍스트의 주요 세부내용을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하고 답한다.
표현과 구조의 이해		
4.텍스트에서 모르는 단어에 대해 질문하고 답한다.	4.느낌을 불러일으키거나 감각적인 이야기나 시에서 단어와 구를 식별할 수 있다.	4.이야기, 시, 또는 노래에서 단어 및 구(예 규칙적인 박자, 두운, 운율, 반복)가 리듬 및 의미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지식과 아이디어의 통합		
8.(문학에는 적용되지 않음)	8.(문학에는 적용되지 않음)	8.(문학에는 적용되지 않음)
읽기의 범위		
10.목적에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모둠 읽기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10.교사의 안내를 통해 1학년에게 적절히 복잡한 산문과 시를 읽는다.	10.학년 말까지 2-3학년의 수준의 이야기와 시를 포함한 문학을 능숙하게, 필요하다면 비계를 통해 창의적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

(1) 읽기 영역

<표 9> 읽기 영역의 '정보 텍스트'에 대한 읽기 기준 (일부)

유치원	1학년	2학년
중심 내용과 세부 사항		
1.교사의 안내를 통해 텍스트의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한다.	1.텍스트의 주요 세부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답한다.	1.텍스트의 주요 세부내용을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을 하고 답한다.
표현과 구조의 이해		
4.교사의 안내를 통해 텍스트에서 모르는 단어에 대해 질문하고 답한다.	4.텍스트의 단어와 구의 의미를 결정하거나 명확하게 하게 하기 위해 질문하고 답한다.	4.2학년의 화제나 주제 영역과 관련된 텍스트에서 단어 및 구의 의미를 결정한다.
지식과 아이디어의 통합		
8.교사의 안내를 통해 텍스트의 핵심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자가 제시한 근거를 확인한다.	8.텍스트의 핵심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저자가 제시한 근거를 확인한다.	8.근거가 텍스트에서 저자가 만드는 특정 핵심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기술한다.
읽기의 범위		
10.목적에 가지고 이해를 하면서, 모둠 읽기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10.교사의 안내를 통해 1학년에게 적절히 복잡한 정보전달 텍스트를 읽는다.	10.학년말까지, 2-3학년 수준의 글을 능숙하게, 필요하다면 비계를 통해 역사/사회, 과학, 기술 텍스트를 포함한 정보전달 텍스트를 읽고 이해한다.

<표 10> 읽기 영역의 ‘읽기 기초 기능’에 대한 읽기 기준(일부)

유치원	1학년	2학년
인쇄물의 개념		
1.책의 기본적인 특징과 조직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1.책의 기본적인 특징과 조직에 대해 이해를 보여준다.	
음운 인식		
2.구어와 음절, 소리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2.구어와 음절, 음가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해독 및 단어 재인		
3.낱말 인식에서 학년 수준의 발음과 낱말 분석 기능을 알고 적용한다.	3.낱말 인식에서 학년 수준의 발음과 낱말 분석 기능을 알고 적용한다.	3.낱말 인식에서 학년 수준의 발음과 낱말 분석 기능을 알고 적용한다.
유창성		
4. 쉬운 텍스트를 목적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읽는다.	4.이해를 돕도록 충분히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는다.	4. 이해를 돕도록 충분히 정확하고 유창하게 읽는다.

(2) 쓰기 영역

<표 11> 쓰기 영역에 대한 쓰기 기준(일부)

유치원	1학년	2학년
텍스트 유형과 목적		
1. 필자는 독자에게 자신이 쓰고 있는 것에 관한 주제나 책 이름을 말하거나, 주제나 책에 대한 선호나 의견을 밝히는 의견을 쓰기 위하여 그리기, 구술, 쓰기의 조합을 이용한다.	1.필자는 자신이 쓴 책의 이름 혹은 주제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을 쓰고 그 이유를 쓰고 결론을 지을 수 있다.	1.필자는 자신이 쓴 책의 주제 혹은 책을 소개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이유를 기술할 수 있다. 이때 접속사를 사용하여 기술한다.
작문의 생산과 소통		
4. (3학년부터 시작)	4.(3학년부터 시작)	4.(3학년부터 시작)
6.교사의 안내를 통해 동료 협업 작업을 포함하여 글을 생산하고 출판하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탐색한다.	6.교사의 안내를 통해 동료와 협력하여 글쓰기를 하고 출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6.교사의 안내를 통해 동료와 협력하여 글쓰기를 하고 출판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지식을 쌓고 제시하기 위한 연구		
9.(4학년부터 시작)	9.(4학년부터 시작)	9.(4학년부터 시작)
쓰기의 범위		
10.(3학년부터 시작)	10.(3학년부터 시작)	10.(3학년부터 시작)

‘교수 학습 및 평가’ 측면에서 문해력 교육에 대한 교과 교사 공동 책임,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가진 학생에 대한 기술적 고려를 명시하였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문법 지도는 학교 내에서 모든 교사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국어 교사와 모든 교사가 문해력 발달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장애 학생의 읽기 학습에는 점자, 스크린 리더 기술, 또는 다른 보조 장치의 사용을 허용해야 하고, 쓰기 학습에는 필사, 컴퓨터, 음성 텍스트 변환 기술 등을 활용한다.

3. 우리나라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역량을 강조하고 교과별로 내용 체계표 형식을 통일하였다. 또 ‘성격’ 항을 신설하고, 교육 내용의 양을 줄이는 일환으로 성취기준 수를 대폭 줄였다. 국어교육과정 내용 영역은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다섯 영역이다. 각 영역의 핵심 개념의 범주는 본질, 글의 유형, 방법, 태도이며, 세부 범주로 보면 7개이다. 또 본질, 매체, 과정을 제외하고는 하위 핵심 개념이 기술되어 있다.

<표 12>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의 영역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핵심 개념	•듣기. 말하기의 본질	•읽기의 본질	•쓰기의 본질	•국어의 본질	•문학의 본질
	•목적에 따른 담화의 유형 •듣기와 매체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읽기와 매체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쓰기와 매체	•국어 구조의 탐구와 활용	•문학의 갈래 •문학과 매체
	•듣기. 말하기의 구성 요소 •듣기. 말하기의 과정 •듣기. 말하기의 전략	•읽기의 구성 요소 •읽기의 과정 •읽기의 방법	•쓰기의 구성 요소 •쓰기의 과정 •쓰기의 전략	•국어 규범과 국어 생활	•문학의 수용과 생산
	•듣기. 말하기의 태도	•읽기의 태도	•쓰기의 태도	•국어에 대한 태도	•문학에 대한 태도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의 읽기 영역, 쓰기 영역의 내용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읽기 영역 내용 체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 읽기의 본질	읽기는 읽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행위이다.			• 의미 구성 과정	• 맥락 이해하기 • 몰입하기 • 내용 확인
• 목적에 따른 글의	의사소통의 목적, 매	• 글자, 낱말,	• 정보 전달, 설득,	• 정보 전달, 설득, 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 • 정보 전달 • 설득 • 친교·정서 표현 • 읽기와 매체 	<p>체 등에 따라 다양한 글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읽기의 방법이 다르다.</p>	<p>문장, 짧은 글</p>	<p>친교 및 정서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숙한 화제 	<p>교 및 정서 표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화제 • 글과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기 • 추론하기 • 비판하기 • 성찰·공감하기 • 통합·적용하기 • 독서 경험 공유하기 • 점검·조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의 구성 요소 • 독자·글·맥락 • 읽기의 과정 • 읽기의 방법 • 사실적 이해 • 추론적 이해 • 비판적 이해 • 창의적 이해 • 읽기 과정의 점검 	<p>독자는 배경지식을 활용하며 읽기 목적과 상황, 글 유형에 따라 적절한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글을 읽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 내어 읽기 • 띄어 읽기 • 내용 확인 • 인물의 처지·마음 짐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심 생각 파악 • 내용 간추리기 • 추론하며 읽기 • 사실과 의견의 구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 요약·글의 구조 • 주장이나 주제 파악 • 내용의 타당성 평가 • 표현의 적절성 평가 • 매체 읽기 방법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의 태도 • 읽기 흥미 • 읽기의 생활화 	<p>읽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자발적 읽기를 생활화할 때 읽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에 대한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과 느낌 나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읽기 습관 점검하기 	

<표 14> 쓰기 영역 내용 체계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학년(군)별 내용 요소			기능
		초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의 본질 	<p>쓰기는 쓰기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으로 소통하는 행위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구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락 이해하기 • 독자 분석하기 • 아이디어 생산하기 • 글 구성하기 • 자료·매체 활용하기 • 표현하기 • 고쳐쓰기 • 독자와 교류하기 • 점검·조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에 따른 글의 유형 • 정보 전달 • 설득 • 친교·정서 표현 • 쓰기와 매체 	<p>의사소통의 목적, 매체 등에 따라 다양한 글 유형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쓰기의 초점과 방법이 다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소재에 대한 글 • 겪은 일을 표현하는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견을 표현하는 글 • 마음을 표현하는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하는 글[목적과 대상, 형식과 자료] • 주장하는 글[적절한 근거와 표현] • 체험에 대한 감상을 표현한 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의 구성 요소 • 필자·글·맥락 • 쓰기의 과정 • 쓰기의 전략 • 과정별 전략 • 상위 인지 전략 	<p>필자는 다양한 쓰기 맥락에서 쓰기 과정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사용하여 글을 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 쓰기 • 문장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 쓰기 • 시간의 흐름에 따른 조직 • 독자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주제를 고려한 내용과 매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의 태도 • 쓰기 흥미 • 쓰기 윤리 • 쓰기의 생활화 	<p>쓰기의 가치를 인식하고 쓰기 윤리를 지키며 즐겨 쓸 때 쓰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에 대한 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기에 대한 자신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의 존중과 배려 	

‘교수 학습 및 평가’ 측면에서 국어 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 학습, 통합형 교

수 학습, 학습자 참여형 교수 학습의 교수 학습 방향을 명시하였다. 다양하고 실제적인 삶의 맥락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어 교과 역량을 함양하도록 강조한다. 국어 교과 내, 국어 교과와 다른 교과 간, 국어 교과와 비교과 활동 및 학교 밖 생활과의 통합 활동을 강조한다. 그리고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적성과 진로, 언어와 문화 배경 등의 개인차와 학교 및 교실 환경 등의 물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국어 수업 활동을 계획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평가 방향으로는 국어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평가 내용의 균형, 평가 방법 및 평가 도구의 타당성, 신뢰성, 적절성을 고려하고, 학습 과정과 결과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학습자의 개인차를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해석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한다.

IV. 기초문해력 차원에서의 자국어교육과정 분석

이 장에서는 기초 문해력 차원에서의 자국어교육과정의 분석 기준을 마련하고,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분석 기준

자국어교육과정의 기초 문해력에 부합 정도를 교육과정 ‘내용’ 항과 ‘교수 학습 및 평가’ 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5> 기초 문해력 차원에서의 자국어교육과정 분석 기준

구분	분석 기준	
내용	내용 영역	• 기초 문해력을 고려한 내용 영역인가?
	내용 범주	• 기초 문해력을 고려한 내용 범주가 설정되었는가? • 기초 문해력을 고려한 내용 체계표인가?
	내용 선정	• 교육과정 내용이 ‘초기 문해’ 교육 내용에 적합하고 충분한가? • 교육과정 내용이 ‘기초 문해’ 교육 내용이 적합하고 충분한가?
	내용 조직	• 기초 문해 내용이 위계적인가? • 기초 문해 내용의 학습 기간 단위가 타당한가?(계열성)
교수 학습 및 평가	개인차 고려	• 학습자의 언어 능력, 언어 배경, 관심사, 흥미, 장애 등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는가?
	교수 학습 자료 지원	•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자료 등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지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가?

2. 분석 결과

가. '내용'항 분석과 시사점

(1) 내용 영역: 기초 문해력을 고려한 내용 영역인가?

영국의 내용 영역은 초등학교급은 3영역, 중등학교급은 4영역으로 차이가 있다. 초등학교급은 음성 언어, 읽기, 쓰기의 3개 영역이며, 중등학교급은 음성 언어, 읽기, 쓰기, 문법과 어휘의 4개 영역이다. 문법과 어휘 영역을 초등학교급에서는 쓰기 영역에 포함시켜 초등 학습자가 쓰기 학습에서 문법과 어휘를 활용하여 보다 통합적인 언어 사용 차원에서 기초 문해를 학습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는 초중등이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으로 동일한 것에 비해, 영국에서는 초등학교급에서는 문법과 문학 영역의 내용을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의 영역에 포함하여 선정하고, 중등학교급에서는 문법과 문학 영역을 독립적으로 선정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영역 구분을 세분화하였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미국의 내용 영역은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문법의 네 영역이다. 이 중 읽기 영역을 문학, 정보 텍스트, 읽기 기초 기능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읽기 영역을 세 개의 세부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특히 읽기 기초 기능을 신설한 점에서 적극적으로 기초 문해력을 고려하여 내용 영역을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 기초 문해력 교육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준다. 교육과정의 에서 세부 영역이나 범주가 설정되어 있으면 교육과정 내용 선정뿐 아니라 교사도 기초 문해력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수업에서 더 강조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도 별도로 영역을 구분하지 않더라도 세부 영역 차원에서 '읽기의 기초 기능', '쓰기의 기초 기능' 등의 세부 영역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내용 범주

① 기초 문해력을 고려한 내용 범주가 설정되었는가?

영국의 읽기 영역 내용 범주로 초등학교급에는 단어 읽기, 독해가 설정되고, 중등학교급에는 읽기만 설정되었다. 쓰기 영역의 내용 범주로 초등학교급에는 글자 쓰기, 작문, 어휘·문법·문장부호가 설정되고, 중등학교급에는 쓰기만 설정되었다. '단어 읽기'와 '글자 쓰기' 내용 범주를 초등 6학년까지 설정한 것은 기초 문해력을 고려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읽기 세부 영역 읽기 기초 기능 범주로 초등학교급에만 인쇄물의 개념, 음

운 인식, 해독 및 단어 재인, 유창성이 설정되었다. K-1까지는 인쇄물의 개념, 음운 인식 기준이 제시되고, K-5까지는 단어 재인, 유창성 기준이 제시되었다. 읽기의 다른 세부 영역인 ‘문학’, ‘정보 텍스트’는 K-12까지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읽기 기초 기능’을 선정한 것은 기초 문해력을 고려한 내용 범주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쓰기 영역에서는 쓰기 기초 기능 범주를 설정하지 않아 쓰기 기준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높고 쓰기 기초 기능 학습이 부족하다.

우리나라 국어과 교육과정은 기초 문해력과 관련되는 내용 범주가 전무하다. 읽기 기초 기능이나 쓰기 기초 기능과 관련된 범주를 설정하지 않고, 오로지 한 편의 글 읽기, 글쓰기에 초점을 두고 내용 범주를 설정하고 있어, 정작 글을 읽는 기초 기능, 글을 쓰는 기초 기능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영국과 미국의 교육과정을 참고할 때 우리나라 국어교육과정에서도 기초 문해력과 관련된 내용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② 기초 문해력을 고려한 내용 체계표인가?

내용 체계표는 우리나라에만 제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6차 시기부터 내용 체계표를 제시하였고,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 시기에는 전체 교과 공통 형식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 국어교육과정 핵심 개념의 ‘본질, 글의 유형, 방법, 태도’는 2009 개정 국어교육과정의 ‘지식, 실제, 기능, 태도’에 각각 대응된다(김창원, 2015). 그런데 이런 내용 체계표의 문제는 본질, 글의 유형, 방법, 태도 범주가 실제(유형) 및 맥락과 연결되지 못하여 결국 탈맥락적인 국어교육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읽기 내용 체계표의 읽기 성취기준과 글의 유형을 연결지을 수가 없다.

또한 쓰기 내용 체계표는 더 복잡한데 어떤 내용 요소는 글의 유형에 배정하고(‘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쓴다’), 어떤 내용 요소는 글의 유형, 방법 둘다에 배정하고(‘읽는 이를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쓴다.’) 있다. 그리고 이 역시 내용 요소와 글 유형과는 무관하다. 내용 체계 범주가 모두와 연결되는 방식 가령, 실제와 본질, 실제와 방법, 실제와 태도처럼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를 탈맥락적으로 분편화하였기 때문이다. 또 본질 다음에 유형이 제시되어 본질은 실제와 무관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따라서 차기 국어과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는 본질, 방법, 태도 등의 내용 범주가 실제 및 맥락과 관련될 수 있게 하고, 현 교육과정의 첫째 내용 범주(본질)과 둘째 내용 범주(글의 유형)의 순서를 변경하여 글의 유형 다음에 본질 범주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내용 선정

① 교육과정 내용이 ‘초기 문해’ 교육 내용에 적합하고 충분한가?

영국은 초등학교 읽기 영역의 ‘단어 읽기’ 범주와 쓰기 영역의 ‘글자 쓰기’ 범주를 설정하였는데, 1학년 내용으로 소릿값 알기, 해독, 음운 인식, 어휘, 낱자 쓰기, 문장 쓰기, 낱말·문장 유창성, 낱말·문장 받아쓰기 등을 선정하였다. 초기 문해 학습 내용 요소를 전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초등 1학년 내용이 읽기 13개 중 단어 읽기 9개, 독해 4개이고, 쓰기 15개 중 글자 쓰기 9개, 작문 3개, 어휘·문법·문장부호 2개로, 단어 읽기 범주, 글자 쓰기 범주의 초기 문해 내용이 독해 범주, 작문 범주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초등학교 읽기 세부 영역에 읽기 기초 기능을 설정하고, 인쇄물의 개념, 음운 인식, 해독 및 단어 재인, 유창성 범주를 설정하였다. 읽기 기초 기능의 범주명 자체가 초기 문해 내용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등 1학년 내용이 인쇄물의 개념 1개, 음운 인식 4개, 해독 및 단어 재인 4개, 유창성 1개로 총 10개, 문학 읽기 9개, 정보 텍스트 읽기 10개로, 1/3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 이에 비해 쓰기는 쓰기 기초 기능 설정이 없고, 텍스트 유형과 목적, 작문의 생산과 소통 등의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 초등 1학년 글자 쓰기 내용이 부족한 편이다. 또 7개 쓰기 기준 모두 한 편의 텍스트 생산과 관련되는 것이라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읽기 영역이든 쓰기 영역이든 본질, 글의 유형, 방법, 태도를 각 영역의 핵심 범주로 선정하고 기초 기능 범주를 설정하지 않았다. 초기 문해 내용이 영역이나 범주로 선정되지 않으면 언어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학습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다. 1~2학년군 읽기, 쓰기 성취 기준 각각 5개 중 초기 문해 관련은 각각 2개 정도이다. 또 하나의 성취기준에 다양한 언어 단위를 결합시켰다. ‘글자, 낱말,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 예는 해독, 낱말·문장 유창성을, ‘문장과 글을 알맞게 띄어 읽는다.’에는 문장 유창성, 글 유창성을 결합시켰다. 초기 문해 내용인 음운 인식, 어휘가 누락되었다. 이러한 결합 방식은 내용의 누락이나 비약의 문제를 일으켜 충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초기 문해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어과교육과정 전체의 성취기준 수를 고려할 때 너무 많이 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성취기준의 대강화로 성취기준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성취기준 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때는 한두 가지라도 초기 문해력 관련 성취기준을 반드시 제시하고, 해당 성취기준에 포함되는 내용 요소를 언어 단위별로 세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 교실 수업에서 이러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② 교육과정 내용이 ‘기초 문해’ 교육 내용이 적합하고 충분한가?

영국은 초등학교 읽기 영역의 ‘단어 읽기’ 범주와 쓰기 영역의 ‘글자 쓰기’ 범주를 설정하였는데, 2학년 내용으로 해독, 음운 인식, 어휘, 낱자 쓰기, 문장 쓰기, 낱말·문장 유창성, 내용 확인, 언어 수행적 쓰기 등을 선정하였다. 기초 문해 내용 요소를 전

반적으로 반영하였다. 읽기 12개 중 단어 읽기 8개, 독해 4개이고, 쓰기 15개 중 글자 쓰기 8개, 작문 4개, 어휘·문법·문장부호 3개로 기초 문해 내용이 독해 범주, 작문 범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초등학교 읽기 세부 영역에 읽기 기초 기능을 설정하고, 인쇄물의 개념, 음운 인식, 해독 및 단어 재인, 유창성 범주를 설정하였다. 이 범주명 자체가 기초 문해 내용과 관련이 깊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등 2학년 내용이 해독 및 단어 재인 6개, 유창성 3개로 총 9개, 문학 9개, 정보 텍스트 10개로, 문학, 정보 텍스트의 내용 확인까지 포함하면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비해 쓰기는 쓰기 기초 기능 설정이 없고, 텍스트 유형과 목적, 작문의 생산과 소통 등의 교육 내용이 선정되어 문장 쓰기, 글자 쓰기 내용이 부족하다. 또 7개 쓰기 기준이 모두 한 편의 텍스트 생산과 관련되는 것이라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읽기 영역이든 쓰기 영역이든 본질, 글의 유형, 방법, 태도를 각 영역의 핵심 범주로 선정하고 기초 기능 범주를 설정하지 않았다. 초기 문해 내용이 영역이나 범주로 선정되지 않으면 언어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학습 난이도가 매우 높아진다. 1~2학년군 읽기, 쓰기 성취 기준 각각 5개 중 기초 문해 관련은 각각 3개 정도이다. 또 하나의 성취기준에 다양한 언어 단위를 결합시켰다. 기초 문해의 핵심 과업인 문장 독해, 문장 쓰기가 누락되었다. 언어 단위를 결합하는 방식은 자칫 기초 문해 내용의 누락, 비약의 문제를 일으켜 충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초 문해력 고려한 범주를 설정하고 언어 단위별로 성취기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4) 내용 조직

① 기초 문해 내용이 위계적인가?

영국 유아교육과정과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의 위계를 살펴보면 유아교육과정에는 문장 독해, 문장 쓰기가 제시되었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해독, 문장 쓰기 등이 제시되어, 유아교육과정 내용이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다. 초등학교급에서는 Year 1 과 Year 2에서의 일부 학년군 기준이 반복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읽기, 쓰기 일부 범주를 제외하고는 K~12학년까지 동일 기준이 반복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⁸⁾. 그러나 쓰기 범주에서는 한 편의 글쓰기에 초점을 두어 낱자, 낱말, 문장 쓰기 내용이 누락되었다. 비록 쓰기 내적으로는 위계적이지만

8) CCSS 쓰기 영역(일부)

내용 범주	K	1	2	3	4	5	6	7	8	9-10	11-12
텍스트 유형과 목적											
작문의 생산과 소통											
지식을 쌓고 제시하기 위한 연구											
쓰기의 범위											

기초 문해 내용의 누락과 비약으로 난이도만 높은 점에서 의미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기초 문해력 성취기준의 특성은 하나의 성취기준에 여러 수준의 언어 단위를 결합한 것이 내용 요소의 위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다. ‘글자, 낱말,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다’는 적어도 세 개의 성취기준인데, 이들을 결합시켜 버리면 글자 읽기, 낱말 유창성까지 지도하는 데 그치기 쉽다. 글 독해를 잘하려면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 문장 유창성과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문장 독해 능력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2학년군 성취기준에 해독, 유창성이 부족하고, 문장 독해, 문장 쓰기가 부족하다. 낱말 단위 학습에서 곧바로 3~4학년군의 글 독해, 글쓰기로 비약이 일어난다. 이에 비해 역행도 있다. 현재 문장의 짜임은 3~4학년군 문법 영역에 제시되었는데, 이는 문장 학습을 핵심 과제로 하는 1,2학년군에서 학습하는 내용이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② 기초 문해 내용의 학습 기간 단위가 타당한가?

미국 CCSS는 CCR과 학년별 기준 모두를 갖추고 이에 도달하기 위해 학년별로 반복, 심화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계열성을 갖추었다. 여기에서 계열성이란 하나의 기준이 K-12까지 연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계열성이란 해당 기준의 학년 학습 단위를 타당하게 배정하는 것이 계열성이다. 아래 표는 ‘읽기 기초 기능’인데, 각 내용 범주 학습의 시작점이 같아도 도착점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쇄물의 개념, 음운 인식은 K-1까지 배정되고, 단어 재인, 유창성은 K-5까지 배정되었다. 이처럼 기초 문해력 교육은 반복 확장의 방식으로 지속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2학년군 성취기준과 3,4학년군 성취기준이 이질적인 경우가 많아 해당 학년군의 학습이 끝나면 다른 내용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기초 문해력의 내용은 이전 학년의 학습 내용과 이후 학년의 학습이 계열화 될 수 있게 조직을 할 필요가 있다.

<표 19> 미국 CCSS 영역별 항목 및 기준(일부)

영역	세부 영역	내용 범주	K	1	2	3	4	5	6	7	8	9-10	11-12
읽기	읽기 기초 기능	인쇄물의 개념											
		음운 인식											
		해독 및 단어 재인											
		유창성											

나. ‘교수 학습 및 평가’항 분석과 시사점

(1) 개인차 고려: 학습자의 언어 능력, 언어 배경, 관심사, 흥미, 장애 등 다양한 개인차를 고려하는가?

영국, 미국,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공통점은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이다. 그런데 국어교육과정에 명시한 개인차의 유형은 나라마다 다소 달랐다. 영국은 학습 부진 대상, 장애 학생, 다문화 학생을, 미국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 우리나라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적성과 진로, 언어와 문화 배경 등의 개인차와 학교 및 교실 환경 등의 물리적 조건을 일컫는다.

사회 다변화에 따라 개별화 요소도 다원화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에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기술 내용이 선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최근에 각광 받는 수업이 바로 개별화 지도(Differentiated instruction, DI)와 보편적 학습 설계(Universal Design for Learning, UDL)이다. 개별화 지도는 교사가 학습자의 준비도, 흥미, 학습 양식을 고려하여, 학습 내용, 학습 과정, 학습 결과물, 정서·환경을 개별화하는 수업 설계이다. 보편적 학습 설계는 모든 개별자에게 가장 적합한 정보 제시 방법, 표현 방법 제공, 다양한 참여 방법 제공을 위한 수업 설계이다.

(2) 교수 학습 자료 지원: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자료 등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지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가?

미국에서는 특별한 요구를 가진 학생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장애 학생의 읽기 학습에 점자, 스크린 리더 기술, 또는 다른 보조 장치의 사용을 허용해야 하고, 쓰기 학습에는 필사, 컴퓨터, 음성 텍스트 변환 기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다. 교실에는 다양한 수준의 다양한 특성의 학생들이 함께 하므로 우리나라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교수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학습, 마이크로러닝,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자료 등 다양한 교수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다.

V. 결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지향은 ‘모두를 아우르는 포용 교육 구현과 미래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혁신 인재 양성’이다. 이런 인재상에서 기초 학습력을 강조하고, 국어과 기초 문해력이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나름의 의의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교육 격차의 원인을 교육적 요인 특히 국어교육과정에 두고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자국어교육과정이 기초 문식성에 부합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 기준을 토대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기초 문해력 차원에서의 국어교육과정 분석 결과는 내용 영역, 내용 범주, 내용 선정, 내용 조직 등 전반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았다. 기초 문해력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

에서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국어교육과정 재구조화 연구 등 2022 개정 국어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교육 격차가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이 제정되는 등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학습 격차가 더 심화되기 전에 국어 기초 학력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올 것이다. 본 연구는 기초 문해력 차원에서 국어교육 과정의 적합성을 연구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국어교육과정이 국어교육의 근간이자 문해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국어교육과정 개발을 대비하여 다양한 정책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대비한 고교 과목 편제, 미디어 역량 교육 강화 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앞으로 2022 개정 총론 교육과정 방향인 ‘기초 학습력’에 대한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 문헌

- 김경애 외(2020), 코로나 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2020-23.
- 김남진(2019), 보편적 학습 설계의 심화, 양서원.
- 김창원(2016), 2015 교육과정을 통해 본 국어과 교육과정 발전의 논제: 영역과 내용 체계, <국어교육학연구> 51권 1호. 국어교육학회.
- 김혜원(2015), 주요 OECD 국가의 유아 언어교육과정 비교 분석 뉴질랜드, 미국, 영국, 호주, 한국 5개국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제35권 제5호.
- 김혜정(2021), 읽기 교육 내용의 비판과 실천적 재구성, <국어교육> 174.
- 노은희 외(2020), 포스트코로나 대비 미래지향적 국어과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연구 2020-14
- 박혜영,김미경, 박지선 외(2018), 교과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언어교육(자국어, 영어)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8-32.
- 백경선,이영아,이동엽 외(2013), 교육과정 편제 및 수업 시수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 CRC 2013-16.
- 원진숙(2021), 학교 국어교육 복지에 관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문식성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32권 1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 이경화(2020), 기초 문해력 반영을 위한 국어교육과정 개발 방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20권 제18호.
- 이경화(2019), 기초 문식성과 읽기 부진 지도, <청람어문교육> 71집. 청람어문교육학회.
- 이경화, 이수진 외(2018), 세상을 향한 첫걸음, 한글 교육 길라잡이, 미래엔.
- 이광우,정영근(2017), 2015 개정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체계 구성의 반성적 고찰 핵심 개념, 일 반화된 지식, 기능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7권 1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 이성영(2011), 초등 중학년의 읽기 학습 과업, <한국초등국어교육> 45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창덕(2011), 듣기·말하기 영역의 문식력 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4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천경록(2021), 기초문식성 관련 연구의 동향과 방향, 제38회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토드 로즈(저), 정미나(옮김), 평균의 종말, 21세기북스.
- Primary Schools: pandemic causing significant learn loss in England(The Guardian, 2021.1.28.일자)
- U.S. Students ended the pandemic school year 4 to 5 months behind a new report finds(The New York times, 2021.7.27.일자)